

내년原油사정 好轉어려워

요즈음 石油문제에 관한한 과잉의 심리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것 같다. 石油가격 하락추세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됐다. 西方세계의 석유수요는 80년중 약 8% 감소했고 올해도 3% 정도가 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 따라 OPEC(石油수출국기구)의 현 석유생산량도 79년이래 20%가 감소한 하루 2천 4 백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같은 사태가 야기된 원인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가격이다.

79년초 배럴당 13달러이던 OPEC의 石油가격은 현재 36달러에 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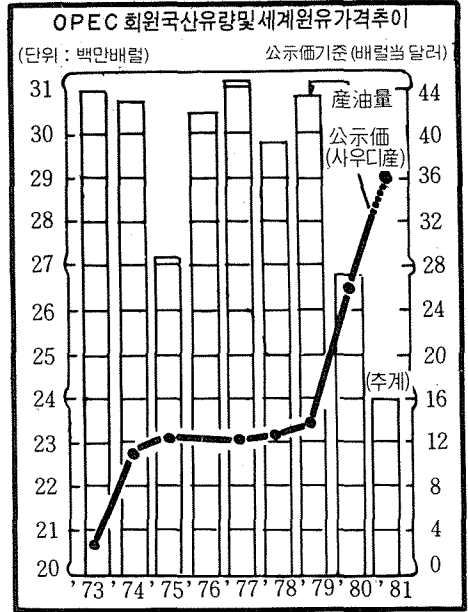
이같은 高原油價가 소비를 위축시킨 장본인이다.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위축시켰고 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절약운동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이것들 보다 더 큰 원인은 石油가격폭등이 西方世界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어 石油수요를 급격히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80년도 서방세계의 경제성장은 고작 1%에 머물고 말았다.

세계각국은 또 석유값이 크게 오르자 原油를 수입하는 대신 비축해 두었던 原油를 사용했다. 이렇게되니 국제시장의 石油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OPEC전체 40%를 점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하루 8 백50만배럴에서 1 천30만배럴까지 1 백80만배럴이나 증산, 원유공급과잉을 부채질했다.

그러면 이같은 石油공급과잉상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없다. 다만 향후 수개월간의 국제정세변동이 國際석유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석유수급을 전망하는데는 불확실성의 요소가 너무 많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운 장래에 原油생산을 감축할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정도의 속도로 감산을 단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앞으로의 석유가격 및 수급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減産여부가 세



계 石油수급 및 가격문제를 결정짓는 모든 요소는 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에도 이란·이라크 戰爭, 美國의 景氣회복속도, 西유럽제국의 경기전망 등 石油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도 확실한 전망을 내릴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하겠다.

만일 서방세계의 경기가 금년말 부터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석유 수요는 예상 보다 큰폭의 증가를 나타낼 것이며 석유소비가 늘어 남과 동시에 각국은 그동안 소비한 비축분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서두를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세계 석유 값이 계속 올랐던 지난 수년간에는 그래도 알래스카, 北海, 멕시코 등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어 가격 상승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이같은 신규생산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79년 오일쇼크이래 각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및 石炭으로의 전환, 人工연료생산증가등 밝은면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石油공급체제는 아직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언제 다시 또다른 오일쇼크가 밀어닥칠지는 예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쨌든 82년중의 石油수급전망은 금년보다 좋아지지는 않을 것임이 확실하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紙에서)